

차기 HEIBAC은 더 내실있는 대회로 운영

현장에서의 기술 경연과 거액의 상금으로 관심을 끌었던 제 1회 서울하인즈 빵과자경연대회(HEIBAC '94)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에 본지는 이번 대회의 실무 총 책임자였던 서울하인즈의 윤상섭 상무를 만나 이번 대회의 평가와 차기 대회가 어떻게 치뤄질 것인가 계획을 들어본다.

■ 순수 기술 경연대회인 셈인데 어떤 동기로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까?

기술 발전의 창구로 SIBA가 있지만 실기 경연과 연관업체 부스가 복합된 행사여서 순수하게 기술자가 대접받는 쇼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제과와 밀접한 유지 업체로써 제과업계에 별로 공헌한 바도 없어 보답한다는 의미와 서울하인즈 홍보를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대회에는 참가자를 35세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 남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5세 이상이면 경력면으로 볼 때 숙련된 기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5세 미만을 B조로 구분해 젊은 기술인들끼리 경연토록 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사실 연령 구별을 하지 않으면 경력에서 짧은 젊은 기술인들이 수상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 이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연령 구분에 대한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HEIBAC '94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대회였다는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서울하인즈에서 내린



윤상섭 상무
(주)서울 하인즈

대회 평가는 어떤지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처음 치러진 행사여서 진행상 미숙한 점도 있었고 참가자들이 실기 경연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불편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경험을 한 만큼 다음 대회에선 이런 보완점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저희의 평가 역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참가자들의 제품 수준도 높았고 공정한 심사에 의한 심사 결과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가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양생과자 부문의 참여가 저조했고 특히 35세 이상 A조의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랜 경력을 가진 가진 기술인들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제조 일선에서 일찍 은퇴한 것과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인들이 대회에 참여했다가 수상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몸을 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나이 많은 기술인들이 계속 제조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력 기술인도 적극적으로 나서 업계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다음 대회는 96년에 개최되는데 이번대회를 거울삼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대체적인 골격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협회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대회엔 대상을 공예부분에서 선정했는데 차기 대회에서는 다른 부문으로 돌아가며 뽑거나 전체 부문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참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역 예선을 거치고 전 시도 큰 대회장을 빌려 소비자가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의 잔치로만 그치지 않고 가족 대항, 학원대항 경연 등과 예를 들어 결혼 답례품 코너, 선물 코너 같은 상업적인 것을 가미해 축제 분위기의 행사를 조성하면 5회 대회쯤에는 HEIBAC이 명실공히 국제적 대회로 성장하리라 봅니다. ☐